



정부의 계란 수입은 국민 필수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루 약 5천만개가 소비되는 국민 필수 먹거리인 계란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하고,
수입선 다변화 목적으로 태국, 브라질, 덴마크로부터
소량 시범 수입하였습니다.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매입가는 178원으로 시중가격이었고,
총 수입비용 16억원은 매입비용 2억원 외
장거리 항공수송 등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신선란 수입에 비용이 들더라도
매일 소비되는 약 5천만개의 전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